

**강릉아산병원** 아동보호체계 강화 위한 워크숍 개최



강원 광역 새싹지킴이 병원 워크숍에 참여한 강릉아산병원 의료진과 유관기관 관계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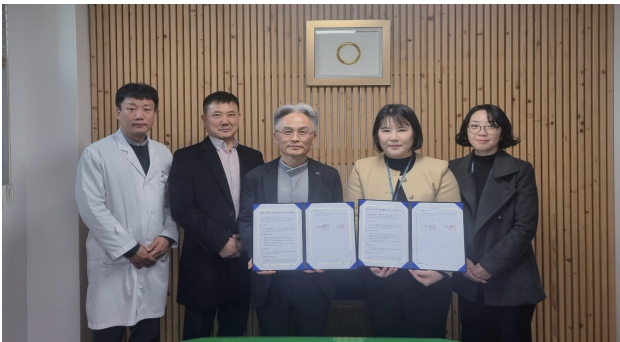
강릉아산병원은 11월 12일 권역 내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강릉아산병원 대강당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강릉아산병원은 2023년 강원 광역 새싹지킴이병원(아

동학대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치료 등 직접적인 아동보호업무는 물론 지역 전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지원과 자문을 수행해 왔다.

이번 워크숍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새싹지킴이 병원과 아동학대 대응 관계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지역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지정된 17개소 병·의원의 현판 전달식을 시작으로 지난 1년간 강원 광역 새싹지킴이병원 활동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관계자의 전

문성 강화와 기관 내 아동학대 발견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강릉아산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의 의학적 평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정읍아산병원** 정읍권 요양병원 찾아가는 간담회 및 업무협약 진행



정읍아산병원 공공보건의료센터 김은혜 주임(오른쪽 두번째), 이유진 사원(오른쪽 첫번째)과 정읍시립요양병원 관계자들.

정읍권(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정읍아산병원이 정읍권 요양병원 11곳을 방문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지역 내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읍아산병원과 요양병원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협력 및 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영덕아산병원** 지역사회 공헌 위해 영덕군에 1천만 원 기부



왼쪽부터 영덕아산병원 박정규 병원장과 김광열 영덕군수.

영덕아산병원은 12월 12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영덕군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영덕아산병원이 설립 취지인 지역사회 공헌 실천의 일환으로 영덕군이 실시한 ‘희망2025 나눔 캠페인’에 동참한 것이다. 박정규 영덕아산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앞으로도 영덕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덕아산병원은 그동안 의료 취약 지역을 위한 원격 협진 지원과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